

## 세속화 문제와 기독교 교육

### (1) 세속화와 대중 사회

요즘 우리는 근대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 앞에는 고층 건물과 물밀듯 밀어닥치는 자동차, 지하도, 그리고 미래의 꿈을 그리는 고속도로와 도시 계획의 투시도와 조감도가 매일 신문에 보도되곤 한다. 우리가 듣고 보는 이 근대화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일까? 겉으로 나타난 한국의 모습이 근대화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몸차림이나, 말하는 방식과 태도도 자꾸만 변해 간다. 길수록 좋게 보이던 차마 자락도 이제는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 농촌에도 앰프로 중계되는 방송이 설새없이 떠들어대고, 옛날에는 십리 길을 멀지 않다고 걸어다니던 농민들도 삼십 분이나 길에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곤 한다.

새로운 기대의 부푼 가슴을 안고 도시로 몰려드는 청년들은 설새없이 거리를 누비고 찾아 다닌다. 이를테면 <좋은 기회>를 찾아 다니는 것이다. 점심 값이나 버스 값만 있으면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 다닐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의 변화상이며, 또 이 변화에 발 맞추듯이 종래의 가치 개념이나 원리 의식도 변모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니, 세속화니 하고 말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변화의 모습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에도 관계가 있다. 아니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더 근본적인 문

제로써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안과 밖의 변화를 한번 묘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 교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 특히 청소년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 사회는 전통 사회에서부터 대중 사회(Mass Society)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중이라는 것은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서 많아진다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가 대중화되어 간다는 뜻이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와 자연과 인연으로써 엮어진 사회 유대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신분을 가문이나 학벌이나 세습적인 특권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The ascriptive 라고 한다.)에서 찾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기능(function)에서 찾는다. 사회 구조 안에서 그가 가진 특정한 기능이 그의 신분을 정해 준다. 그리고 그 신분 관계로 인해서 그의 인간 관계가 재정리되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대중 사회의 특색이 무엇이며, 전통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 대중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 (2) 대중 사회란 무엇인가?

블루머(Herbert Blumer)라는 학자는 대중 사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대중 사회에는 계급 차별이나 직업의 귀천이 없다. (2) 대중 사회는 본래 무명적(anonymous)이다. (3) 대중 사회에서는 각자가 겪는 경험을 서로 교류하는 일이 적다. (4) 대중 사회에서는 조직화된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특징을 대충 우리의 생활에 전주어 보면 어떤 점은 남독이 가지만 어떤 점은 우리 실정에 타당치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는 직업의 귀천이 있고, 단체적인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대중 사회로 옮겨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전통 사회의 잔영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야비·콕스는 <세속 도시>라는 그의 저서 속에서 이 대중 사회의 특징을 무명성과 기동성(Mobility)으로 나누어 저술했다. 기능 중심적인 대중 사회 안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별로 맥을 추지 못한다. 이름 없는 개인, 소외된 개인의 집단이 바로 대중 사회이다.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대중 사회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된다고 개탄한 철학자나 문학자들도 많았다.

대중 사회의 무명적인 성격에서 우리는 개인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의 출생지나 지방적인 거점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명적인 대중 사회인의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대중 사회 이전의 촌락 사회에서는 개인이 선택하는 범위가 딱 좁았다. 독서나 오락, 친우 관계, 패션 등 거의가 일정한 제도 안에서 선택되어진다. 그러나 대중 사회, 도시 생활에서는 개인이 자기의 취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있게 선택하든, 막연한 감정에 물려서 선택하든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도시 생활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러한 선택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사회 안에서의 선택은 손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기야 뽕면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하는 선택쯤이야 쉬운 일이다. 그러나 대중 사회 안에서의 생존이 뽕

면과 비빔밥의 선택처럼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블루머는 대중 사회 안에서의 생존 경쟁을 미국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점령과 금광 쟁탈전에 비꼈다. 광막한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데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에 각자가 가족과 가재 도구를 실은 역마차를 몰아서 마치 경마를 연상케 하는 경주를 한다. 이것은 서부 활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날썰게 달려 먼저 도착한 자가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다. 그 옥토를 점유한다는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마차를 모는 동안에는 이웃이고 친구고, 친척도 아랑곳 없는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것이 대중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생존 양식이라고 블루머는 묘사하였다.

### (3) 이유 없는 반항

지금까지 대충 대중 사회의 특징과 대중 사회인의 생존 양식을 훑어보았다. 한국 사회가 현재 이러한 대중 사회로 향해서 변천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선진국가의 대중 사회와 꼭 같은 복사판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한국 사회의 전통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변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 사회, 특히 가정 생활의 변천에서 청소년의 교육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대중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은 우리 나라의 교육에서 이미 전개되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식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무자비한 경쟁의 도가니 속에 투신하고 있다. 내가 먹히느냐, 내가 먹히느냐, 하는 비장한 결심으로써 좋은 학교에 입학하

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학교 차별의 철폐란 한낱 공염불처럼 입 학기마다 매아리친다.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처절한 경쟁을 고무하면서도 교육에서만 경쟁을 없애라는 것은 너무나도 실현성이 없기 때문이다.

모태에서 낳는 순간부터 애기를 저울에 달아서 체중을 알아낸다. 이 테스트를 시발점으로 해서, 유치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연속 속에서 견디어 내야만 한다.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어 당기는 것은, 어머니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것이 또한 어린이의 매소키즘의 시원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부모의 지나친 편애와 요구, 기대에 마주 치면 이러한 신체적인 확신(Somatic Conviction)을 잃어버린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아동이 어릴적에 가지는 충동을 둘로 나누어서 <holding on> 과 <letting go> 라고 했다. 어린이가 이러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조절을 못하는 데서 오줌, 똥을 가리지 못하는 결과가 초태된다. 신체적인 확신의 결여는 아동 발육에 있어서 불신이라는 심리적인 결함을 가져온다. 특히 도시 생활에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지거나, 격렬한 생존 경쟁 때문에 꾸집하고 완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서 감수성이 예민한 틴 에이지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발육기의 소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양상, 즉 <holding on> 과 <letting go> 가 상충되어서 잔인성으로 변해지지 않도록 부모가 외부로부터 어떤 확고한 컨트롤을 해야 한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하는 자의적인 컨트롤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을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어와 컨트롤을 함으로써 소년들 자신의 자유 선택을 도와 주지 못하면,

결국 소년 자신이 남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조속한 아동들이 자칫하면 신경질적인 충동 (Compulsion neurosis)에 걸리게 되는 것도 이러한 데서 비롯된다.

신체적인 확신의 결여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부모의 돌봄에서 기대하는 신뢰가 없으므로 느끼는 좌절감 때문에 소년은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외부에 대한 반항인 동시에 자신의 좌절감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란 있을 수 없다. 자기의 좌절감에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청소년을 지도하려면 이러한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연구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활은 언제나 피어 그룹(peer group)에 집중되고 부모나 스승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 (4) 아이덴티티의 문제

청소년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은 역시 성적인 아이덴티티의 문제일 것이다. 남자는 남자답게 또 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모색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무심코 주고 받는 대화는 주로 무의식적인 성적인 아이덴티티의 모색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밤 늦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행사 준비를 하며 설새없이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자아, 또는 아이덴티티의 모색을 위한 것이다. 자기의 느낌을 어떻게 남에게 전달하며, 남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반영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민감하게 된다. 이렇게 남에게 비

추어진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려고 한다.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아를 또렷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에서 이성과의 사귀음을 바라게 된다. 이러한 사귀음은 반드시 성적인 연애 감정은 아니다.

청소년이 자기의 역할에 대한 혼란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윗 사람들 (특히 부모나 교사들)이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하고 전후가 모순되는 자아 혼란에 빠졌을 때에 더욱 심하다. 부모나 교사 자신이 이러한 자아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답변을 해 주거나,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할 때에, 청소년이 느끼는 역할과 혼란이 더욱 심해진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지도 방법이니, 기술이니 하는 일면적인 데만 치우쳤지만, 방법과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 못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이다. 지도자 자신이 주체성 위기에서 혼란을 가지고 있는 한, 청소년에 대한 훌륭한 기술이나 방법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기에 가장 급한 일은 지도자나 부모 자신이 대중 사회의 분석과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의 반항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대중 사회의 과정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도자들이 사회 구조와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더 빨리 해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좌절감은 더 심해지고 일종의 허무감에 사로잡혀 방종에 빠질 우려가 많다. 그러한 청소년이 느끼는 허무 허탈감이 그대로 지속되면 건전한 결혼 생활에 의한 책임적인 시민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는 보헤미언 타입의 인생 행로를 걷게 되는 것이다. 현대 한국 교회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교육 정책과, 부모들의 생존 경쟁에서 빚어지는 이러한 인격 형성 위기를 신중히 다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도시와 섹스

청소년이 느끼는 혼란 중의 가장 심각한 것은 섹스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도시 생활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를 통한 상업 방송 그리고 은연중에 풍기는 성 해방 등을 청소년은 잘 감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제재나 가정에서의 교훈은 성에 관한 한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우선 여기서 내면적인 갈등을 느낀다. 위에서 인용한 <세속 도시>에서 록스는 미국의 청년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 소년들은 대개 열 세살이면 데이트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스물 세살에 하게 된다면 적어도 십년 간은 남자들과의 데이트를 계속한다. 그러나 부모들의 엄격한 훈계에 순종하는 중류 가정의 소녀들은 데이트를 하더라도 성교를 하는 것만은 피한다. 그대신 보이 프렌드와의 애무 행위만은 허락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애무 행위로써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혼 전까지는 기술적인 처녀성을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혼 생활, 특히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치루어나가는 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가 야기된다. 이혼 사건이나 가정 불화 때문에 상담소를 찾아 오는 가정 부인들의 이야기는 거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생활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기술적인 처녀성과 아울러 기술적인 창녀도 있을 수 있다. 결혼 전에 성교를 한 처녀가 자포자기를 하여서,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분별한 성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처녀

나 기술적인 창녀는 다 같이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이들의 고민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5—16절에서 창녀와의 성 관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하였다. 베일리(D. S. Bailey)는 A.D 일 세기의 한 말로는 너무나 심리적인 통찰로 가득 찬 말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에 대하여 간단한 공식으로 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처녀나 기술적인 창녀로 전락하지 않고, 청년의 전 인격을 구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 의식을 고취하고, 책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자유롭게, 그러나 책임지는 성 행위는 생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행위라는 것,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 행위는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성 행위, 즉 인격적인 행동으로서만이 진정한 생리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재미로 하는 성 행위는 결국에는 아무런 재미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 이전의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선택, 결정하고, 그러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 (6) 결 론

제작년 뉴욕 주에서는 미국 역사상 드문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전이 자주 있어서 전기가 끊어져도 대단한 사건이 되지 않으나, 미국처럼 전기가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에

서는 전기가 잠시라도 끊어진다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전기에의 의존도가 심한만큼 정전에서 오는 피해도 심하다. 수술 중의 환자가 정전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층계 중간에서 정지되어 벽을 뚫고 나온 일, 그리고 지하철이 울스톱이 되자 자동식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유리창을 부수고 나오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사태에도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특히 평상시에는 골목마다 누비고 다니며 나쁜 장난만 일삼던 청소년들이 일단 이런 긴급 사태에 이르자, 단합하여 노인과 여성들에게 캄캄한 길을 인도하거나 안내하는 일을 솔선해서 치루어 나갔다. 경찰에서는 정전 중에는 불량 소년들의 약탈 행위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긴장했었는데, 뜻밖에도 청소년들이 질서 유지에 솔선 협조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이다.

크리스천 샌추리에 <부요한 사회의 윤리>라는 글을 쓴 어떤 필자는 남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이웃집 유리창을 부수는 저들이 이렇게 긴급 사태에서는 건설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문제를 제시했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도 청소년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들의 좌절감을 행동으로 극복하게 하여야 한다.

교회의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도 현대 한국의 사회 발전과 대중 사회화가 청소년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을 연구하고 <이유 없는 반항>을 동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저들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며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